

“무주반딧불축제 힐링여행 오세요”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특별할인

무주군, 무주 주재기자·전북자치도 기자실 찾아 주요 프로그램 등 공유

무주군은 지난 22일 무주 주재기자실을, 26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실을 찾아 9월 6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를 알렸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와 박찬주 무주반딧불축제위원장 등 무주군 관계자들은 올해 축제의 주제와 자랑점, 달라진 점, 프로그램 등을 공유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올해는 바가지요금·일화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無)축제에 더해 환경보호와 여행, 힐링을 결합한 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반딧불이라는 환경지표 곤충을 소재로 하는 축제답게 친환경 메시지를 담아 방문객 누구나도 친환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제장 곳곳을 친환경 실천 분위기로 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주라서 특별한 경험, 반딧불 축제라서 가능한 감동을 꼭 경험해 보시고 또 널리 전해달라”고 덧붙였다.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는 9월 6일부터 14일까지 무주군 일원(등나무운동장, 지남공원, 남대천변 등)에서 개최



무주군은 지난 22일 무주 주재기자실을, 26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실을 찾아 9월 6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를 알렸다.

되며,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을 주제로 9일간 체험·환경탐사·문화예술·주간경관·야간조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바가지요금·일화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無) 축제”를 기반으로 친환경 축제의 참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반딧불이 주재관’, ‘반딧불이 신비탐사’, ‘1박2일 생태체험’, ‘반디별 소풍’,

‘남대천 생명플러스(치어방류 & 소원지 띄우기)’ 등이 개최된다.

박찬주 무주반딧불축제위원장은 “올해도 친환경 가족 축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자연특별시 무주의 이름, 친환경 반딧불축제의 이름에 걸맞은 축제의 참재미를 보여드리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자치도 주민자치연합회 월례회의’ 장수서 개최

위원 역량 강화·주민 참여형 축제 추진 방향 중점 논의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자치연합회가 장수군 계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8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14개 시·군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최훈식 장수군수와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함께 자라해 “주민자치는 지역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 활동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민자치 위원 역량 강화 방안과 주민 참여형 축제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당일 열린 계북면 대표 축제인 ‘제3회 계북 장수가꿈 토마토랑 수박 축제’ 현장을 찾았다.

이번 축제는 이정관 계북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축제추진위원장을 맡고 계북면 이장협의회·체육회·주민자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자치연합회가 장수군 계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8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치위원회 등 지역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추진한 행사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자치 역량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날 축제 현장에서는 주민이 중심이 된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져 주민자치가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높이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자치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장수군 계북면에서의 월례회의 개최와 축제 참관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공동체의 주도적 주체로 확립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주민 참여의 폭을 확대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주민자치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자치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며 “장수군도 주민자치 실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홍삼축제·추석맞이 최대 20% 할인·구매한도 60만원으로 상향

진안군은 9월 홍삼축제와 10월 추석을 맞아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이번 판매는 최대 20% 할인지원과 60만원까지 구매한도 상향으로 진행된 다.

군은 이번 추진을 위해 제1회 추경을 통해 10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추가 할인과 구매한도 상향을 위한 조례 개정도 완료했다. 이를 기반으로 상품권 발행 규모를 지난해 120억 원에서 올해 2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높이고 있다.

행복상품권은 지류형과 카드형 모두 9~10월 두 달 동안 구매 시 15% 선할인을 적용하며, 카드형의 경우 사용액의 5%를 추가 캐시백으로 지원해 최대 2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캐시백은 특별할인 기간 동안 최대 6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월 통합구매한도는 기존 5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상향된다. 보유 한도는 150만 원

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보유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chak’ 또는 관내 농협·새마을금고 등 대형 금융기관 24곳에서 구매 가능하며,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가맹점은 886곳에 달해 주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생활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가맹점 정보는 군 누리집과 ‘chak’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특별할인은 정부에서 지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과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군민들의 체감 혜택을 더욱 높이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할인을 확대와 구매한도 상향이 군민들의 지출 부담을 덜고,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딸기 재배 농가 대상 꽃눈분화 검정 실시

무주군이 딸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오는 9월 19일까지 지역 내 딸기 재배 10농가를 대상으로 꽃눈분화 검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딸기 자묘의 생장점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꽃눈 발달 정도를 확인하는 검정 기술을 활용해 농가별 맞춤형 정식·관리 지도를 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꽃눈분화 검정은 정식 시기와 초기 관리 전략 수립의 기준이 되는 과학적 정밀 진단을 통해 생육 안정과 수량 확보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딸기 자묘(2~3주)를 가지고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소독작목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되며, 결과는 개별적으로 제공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에향교교육진흥재단, 토셀 정기시험 38명 응시

(재)장수군에향교교육진흥재단은 재단의 초등영어학습지원사업의 토셀 스타터 과정 교실에 참여 중인 학생 38명이 ‘제89회 토셀 정기시험’에 참여했다고 26일 밝혔다.

‘토셀’은 한국인의 영어교과과정을 고려해 영어 구사 능력 증진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국제적 영어능력 인증 평가제도로 초등, 중등, 고등, 성인까지 볼 수 있는 시험이다.

재단은 자기주도력과 성취감, 중등으로 이어지는 학습효과 증진, 영어를 통한 문화다양성 습득 및 실질적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2023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7개 읍면별 토셀 교실을 시행해 왔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은 학습했던 성과를 확인하고 영어 공부에 대한 동기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계북면, 장수가꿈 토마토랑수박축제 성료

장수군 계북면의 대표 여름 축제인 ‘제3회 장수가꿈 토마토랑 수박축제’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계북면 참샘골 체육관에서 열려 3,000여 명 넘는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며 계북면 대표 농특산물인 토마토와 수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올해 축제는 토마토·수박 품평회, 수박지 뽕기, 토마토 탐방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 농특산물 판매 부스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연, 초청 가수 무대가 더해져 축제를 빛냈다.

또한 개막식에서는 장수꼭두인 형극단이 내외빈을 인형극 형식으로 소개해 따뜻하면서도 유쾌한 장면을 연출, 관람객들의 웃음과 박수를 끌어냈다.

특히 인형이 최훈식 장수군수와 이종현 계북면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을 한 분씩 소개할 때마다 관람객들의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와 계북 지역 축제만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줬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농촌기술학교 2기 주민 자립 역량 강화 기여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센터장 노영권)는 농촌기술학교 2기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

농촌기술학교는 진안군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실생활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는 지난 3월 17일에 이어 8월까지 2기에 거쳐 교육이 진행됐다.

지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열린 이번 교육은 ‘소소한 생활 수리 교육’을 주제를 실습 위주로 추진됐다. 전체 일정의 90% 이상을 실제 생활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수리 기술 습득에 집중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